


공동체 소식



사순 제5주일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 **오늘은 ‘사순 제5주일’ 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입니다.

- **성주간 전례 안내**
- 4/9(일) 오전 11:00,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미사)
- 4/11(화) 오전 11:00, 교구 성유축성미사 (본당 저녁미사 없음)
- 4/13(목) 저녁 8:00,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헌금, 발씻김 예절, 미사 후 성체조배)
- 4/14(금) 오전 10:00, 십자가의 길 기도, 저녁 8:00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절 (예루살렘 성지복구 위한 헌금, 십자가 경배)
- 4/15(토) 저녁 8:00,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 4/16(일) 오전 11:00, 예수 부활 대축일 (라이스볼 봉헌)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매 사순주일 교중미사 40분 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공동으로 시작합니다.

■ **부활절 맞이 합동 판공 고해성사**
- 1,2구역 일정 : 4/7(금) 오전 10-12시, 오후 8-10시.
- 3,4구역 일정 : 4/8(토) 오전 10-12시, 오후 8-10시.

■ **4월 신심미사 안내**
- 예수성심 : 4/7(금) 오전 10:00, 9:30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

■ **반모임 안내**
- 내용: 반모임은 반장님 주관으로 날자와 장소와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바랍니다.

■ **Holy Trinity 본당의 Stone Chapel 이용 안내**
- 4/8(토), 4:00pm - 8:00pm
- 4/23(주일), 1:00pm - 4:00pm

■ **미부활절 맞이 성당 대청소**
- 일시 : 4/9(주일) 교중 미사 후, 식사를 하기 전.

■ **부활 대축일 전례꽃 봉헌 안내**
- 내용: 전례부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18	215	500	121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차 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문예나 요안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정수한 베드로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 주	최은미 아네스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 **애찬 봉사자**

금 주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박옥희
차 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 **헌금 봉사자**

금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3/26일	53명	300달러	2,040달러
김화년, 문석찬, 박동희, 박옥희, 이우석, 이혁구, 오명현, 정연숙, (총 8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살아 있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라자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죄 때문에 죽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를 하느님께서 굽어보시고 성령의 힘을 내리시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도록 청하며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그림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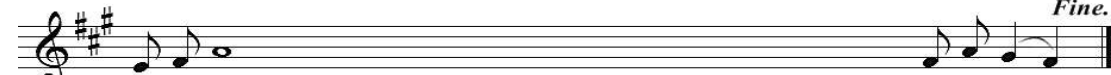
라자로야, 나오너라

“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요한 11,42-43)

예수님께서 라자로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신 것은 당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마지막 봉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문을 거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7,12-14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리겠다.>

화 답 송 :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8-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45<또는 11,3-7.17.20-27.33-4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



에제키엘 예언자는 백성들과 함께 바빌론에 유배를 끌려갔던 사제였습니다. 에제키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살다가 유배를 끌려오게 되었는데, 이런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서 더럽힘을 당합니다.(에제 36,16-38) 오늘 1독서에서 에제키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유배 상황을 무덤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죽음을 맞게 되어 무덤에까지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더럽혀지게 된 당신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고자, 곧 당신이야말로 주님이심을 드러내고자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꺼내어 되살린 뒤 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에제 37,14)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에제키엘의 예언처럼 50년이 지난 후 속박에서 풀려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고 말합니다.(로마 8,10)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은 우리가 성령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인데,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충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조들과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모두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말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해내어 당신이야말로 참된 주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죽었던 라자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죽은 이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밝히시며, 당신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

라고 말씀하십니다.(요한 11,25) 당신을 통하여 에제키엘이 예언했던 일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오로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비로소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곧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덕분에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것임을 믿는 이들입니다. 물론, 영원히 산다는 말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신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장애를 지니고 있는 분들은 영원히 몸이 불편한 채 살아가야 하고, 불치병을 지닌 분들은 영원히 불치병을 지닌 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 부활하여 온전히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 육신 그대로 부활한 나자로도 죽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움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임을 믿읍시다. 그러면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우리 모두를 무덤에서 건져내어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 영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십자가상 윗부분에 붙어 있는 'INRI' 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1코린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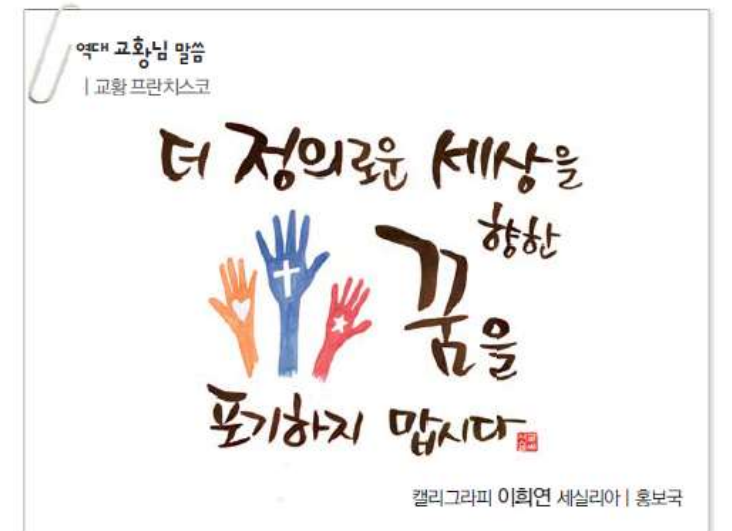
서기 33년경,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저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나자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첫 번째 죄목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유다교의 핵심 계명인 안식일 법(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마르 3,1-6 참조)과, 정결레법(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마태 15,1-20 참조)에 대한 발언이 도전적이어서 위기에 몰린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대제관과 원로들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요한 2,19) 그러나 단지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로 적용시킨 죄목은 정치적 선동죄였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요한 19,19)

예수의 죄명을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 라틴어로 ‘Iesus Nazarenus-Rex-Iudaeorum’라 한 것입니다. 이 약칭 ‘INRI’가 십자가상 윗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사실 자체가 로마 제국의 독자적인 결정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정치적 선동죄

로 로마 제국에 고발하여 선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사형(로마식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대역죄를 범한 폭도, 탈영한 군인, 성전 강도와 같은 중죄인들이었다), 곧 십자가형을 받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야 하는 십자가, 남이 나에게 지우는 십자가, 또 하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순 시기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면서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게 지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슴에 품고’ 부활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자유

그래서 주님!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나 봅니다.

건강도 잃었던 이가 소중함을 알듯
헤어진 이가 사랑에 목마르듯
갈힌 이가 자유로움을 그리워하듯

죽음에 묶인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요한 11,44)

- 임의준 신부